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흠 없는 영혼몸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24절

Tag: 구원,데살로니가전서,신약

16 항상 기뻐하라

17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19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1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24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전
5:16-24)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순간 순간 유혹당하고, 넘어지고,
의심하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말에 실수하고, 과거의
버릇들이 불쑥거리며 튀어나오는 불완전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일지라도 사람들은 수치스럽고 부끄러
운 자신의 모습이 들키는 것을 두려워한다. 겉으로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치장을 통
해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애쓴다. 당연하고 바람직한 모습이다.

죄악을 숨기는 것은 본능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설교에서는 회개하라고 외치고, 사람들을 설복해서 회개에 이르는 설교를 잘 하면 훌륭한 설교가라고 인정한다.

또 한편으로는 교인들을 성도라 부른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씻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른다.

그런데 성도들은 매 주일 교회에 나와서 한주간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죄와 회개를 반복하는 것일까? 그렇게 보일 수 있다.

-많은 죄가 일순간에 소멸하는게 아니라, 공든 탑을 쌓아 가듯이 신앙의 경력이 올라갈 때마다 죄가 하나씩 없어져서 최후에는 흠 없는 영혼몸이 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흠 없는 영혼몸’

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23절 말씀은 우리의 영혼몸이 흠 없이 보전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까지는 완성되어야 하는 숙제인가?

-아니면, 성도가 된 순간부터 흠이 없어야 하고, 이 흠 없는 상태가 재림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가?

*또 다른 성경에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2:16)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러면 도덕적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있으면 그냥 의로워진다는 말인가? 내가 여전히 죄 중에 있지만, 믿기만 하면 그냥 흠이 없어지는가?

-물론 여기서 율법의 행위는 율법주의, 외식주의로서는 진정한 정의가 아니라는 뜻으로 기록되었다.

사실 죄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

죄의 속성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깨닫는 것은 쉬운 것 같아도 어렵다.

22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에는 모양도 있는가?

-하와는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악을 취했다.

-악은 자신의 욕심과 가까이 있을 때, (구체적으로는)탐심으로 인한 신체적 호르몬이 분비되었을 때, 먹음직스러운 유혹으로 보인다. 심지어 정당한 모습으로 비쳐진다. 사실은 그것이 정의라고 비쳐졌을 때 사람은 어떤 투쟁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불태우며 자기의 정의를 불태우는 자들이다. (15일 민노총 집회)

우리나라 형법에도 무엇이 죄인지, 왜 죄인지, 처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슨 근거로 죄를 입증할 것인지, 죄의 종류가 무엇이며, 무슨 죄목으로 형을 구형해야 하는지를 복잡하게 규정해 놓았다. 그리

고 계속해서 이 규정들은 늘어날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막연하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만 알 뿐, 정확하게 알려면 검사나 변호사를 만나고 나서야 도대체 무엇이 죄이며 그 형벌은 무엇이고, 벌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선언은 좀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쉽게는 형법이나, 율법으로 죄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고, 혼적으로는 인간들끼리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고, 육적으로는 생리적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더구나 이 영혼육은 떼레야 떼 수 없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죄를 이해하려면 첫째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내가 옳다면 너는 나의 뜻을 따라야 한다. 내가 옳다면 나는 너의 뜻을 따라야 한다. 만약 둘의 뜻이 합의한다면 죄는 없는가?

또 누군가는 자신의 뜻을 강요할수도 있고, 속이는 말로 죄가 아니라고 위장할 수도 있다. 누군가는 그 선한 뜻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면 관계는 틀어지고, 서로는 상대를 죄인이라고 단죄한다.

만약 상대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둘이 합의를 하였지만, 서로 합의한 그 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가? 둘이 아니라 몇천만명이면? (군중은 곧 권력을 의미하며, 권력은 독재적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니, 하나님이 잘못된 판단을 하시거나, 불의한 행동을 하시거나, 악한 판단을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반면 인간은 피조물이니, 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고, 전능하지도 않으며, 지혜도 부족하고, 전지하지도 않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나, 사람은 실수도 많다.

다행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시며, 지혜도 많으시니, 우

리의 실수를 거뜬히 처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한 살배기 자녀의 실수는 부모가 사랑으로 처리한다. 돌아온 탕자도 하나님 아버지는 품꾼이 아닌, 아들로 맞이하여 그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다.

흠 없는 영혼품을 이해하기 위한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다.

아이가 유치함을 버리듯이, 죄인이 자기의 의, 율법의 치장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것이 흠 없는 영혼품의 핵심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인간은 자신의 나약함, 죄 많음,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크게 부끄러워 할 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내가 나약하며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내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걸만 그럴 듯하게 치장한들 아무런 소용도 없고(율법주의),

아무리 몰래 지은 죄라도 이미 들킨 죄이고, 나의 생각까지도 꿰뚫고 있으시니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회개를 거부하는 **고집스러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생각을 확증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는 합리적인 추론도 이미 산더미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14:1)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이제는 자기가 모든 행위의 중심이다.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남 탓을 한다. 나는 더 큰

일을 위해서 작은 죄는 지을 수 밖에 없고, 나중에 다 갚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에게 의로운 존재인 셈이다.

결국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해하려는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많이 다르다. 전자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동등한 쌍방이다. 사람에게에는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 선함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면 자기 중심적이 되고, 내가 설령 양보한다 치더라도 상대방은 얼마든지 더 악랄할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아벨은 형에게 죽임을 당했다. 이 사건이 최초의 사건이지만, 예언적인 사건이기도 하다. 아벨은 의인이었고, 가인은 악인이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용서 받고 구원 받는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온전해 지는 것 밖에 없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시며, 오직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시다.

반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에 비해 나약하고, 무지하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공평하지도 못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셨지만, 죄인은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릴 힘도 지혜도 없다.

구원이란, 먼 훗날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구원을 완성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모든 막힌 담을 허셨다. 죄악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성령님을 통해 진리를 깨우쳐 주셨고, 예수님의 구원에 관해서 자세

히 가르쳐 주셨다.

죄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주심.

죄를 이기고 흠 없는 영혼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오직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가능하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부당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입힐 수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은 나에게 갚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가인과 아벨)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은 인간들의 여러 가지 죄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결론인 셈이다. 곤고한 처지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우선은 저주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자신의 의지와 매우 관계가 있다.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으니, 예수님의 구원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은 현실적인 믿음이다.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믿을 때, 순종하고, 인내하고, 충성스러워질 수 있다.

-회개하는 것 만으로도 우리 영혼은 크게 진정된다.

-인내를 통해서 나의 엉뚱한 소망이 정리되고 진짜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소망이 보이게 된다. (이것도 구원)

● 그 다음에 가능해 지는 것

16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17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18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

신 하나님의 열쇠(뜻)이나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 공백**이 없다는 뜻. (한 순간도 바람피우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을 받으라. 자신이 성령을 받으면 다르다.

19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믿음이 떨어지는 것은 본인이 느낀다. 그러면 경광등을 켜야 한다. 하나님 없이는 전기 나간 전선에 불과할 뿐. 전기가 들어오기를 갈망해야 한다.)

20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1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성령의 지혜로)

22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물리적으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소중하다.

-우리는 전선이고 전기는 성령이시다. 오직 전기가 흘러야 불이 켜지고 기계가 돌아가듯이

-성도는 성령으로 움직이는 존재다.

-당신의 영혼에 불이 꺼져 있는가? 당신의 영혼이라도 불살라 성령님께 구조신호를 보내라. 성령님이 다시금 임하시도록 갈망하라. 무엇이 서운하셨나요? 제가 잘못했으니 다시 오소서. 내가 나태했습니다. 내가 강팍했습니다. 내가 이기적이었습니다. 내가 게을렀습니다. 성령이여 내게 다시 오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율법과 경건의 차이

성경: 신명기 11장 22-32절

Tag: 제자훈련

- 구약성경은 신약성경을 미리 가불해 왔다.
-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
- 우리는 구약을 해석할 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날개 아래 있음을 인식하고 해석해야 한다.
- 이미 성막과 제사법을 통해 예수님의 속죄가 현존해 있었다. 비록 한시적인 효과만 있었지만.

22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 율법을 지키는 동기는 사랑이요, 방법은 주께 의지하는 것이다.
- 경건치 않는 자들은 나약한 자가 주를 의지한다고 하는데, 모든 인생은 나약한 존재일 뿐.
- 나약한 자들이기에 떼거지(패)로 몰려 다니는 것일 뿐.
- 떼거지의 힘을 믿고 약자만 골라 괴롭히는 자들. 1대1로 붙으면 오히려 더 약해지는 자들. 말 밭에서 밀리는 자들.
- 강패(gang+牌-같이-(동질적 딱지) 어울려 다니는 자들)들이 가장 나약한 자들. 그들은 스스로를 강있게 보이려고 문신한다. 또는 무식한 자들 상식과 법을 모르니 주먹이 앞선다.
- 다들 왕초가 되려고 하는데, 도토리 키재기.

경건이란 율법의 반대말도 아니요, 율법보다 더 월등한 것도 아니다.

- 다만 경건이 없는 율법은 율법주의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진다.
- 심지어 율법이 자기의와 결탁할때는 무서운 살인무기가 된다.(바울)
- 그 무기가 예수님도 죽였다.

23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
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구약성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시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을 보여 주셨다는 것.

-예수님은 3년여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몇
천년동안이다.

24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
라

25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26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27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
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구약에서는 가장 큰 걸림돌이 우상숭배

2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
를 선포하라

30 이 두 산은 요단 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
은편 모레 상수리나무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31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

기 거주할지라

-예수님의 요람이 된 가나안

32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신11:22-32)

-율법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의 울타리가 되었다. 안전장치.